

開化期小說 「多情多恨」에 나타난 基督教精神

金 京 完*

목 차

1. 머리말
2. 「多情多恨」의 創作背景
3. 作品構成에 나타난 基督教精神
4. 基督敎의 삶의 文學的 形象化
5. 맺는 말

1. 머리 말

「多情多恨」은 1907년 1월 24일과 1907년 2월 24일자로 각각 간행된 '太極學報' 通卷 6號와 7號에 실린 개화기 기독교 소설이다. 일반적으로 개화기의 기점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보고 있으며, 개화기문학이란 갑오경장 이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의 문학을 일컫는다.¹⁾ 신문학이 개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문학적 과제로 내세우고 출발했으며, 그 사상적 초점을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서구화에 두고 있었던만큼 기독교와의 접촉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²⁾ '白岳春史'라는 필명을 사용한 저자는 당시 태극학보의 편집 겸 발행인인 張膺震의 號가 '白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바로 장웅진 자신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³⁾ 본고는 개화기소설인 백악춘사의

* 숭실대 국문과 강사

- 1) 蘇在英, 「기독교의 전래와 한국문학」,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48쪽.
- 2) 권영진, 「한국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양상」, 『한국 기독교와 예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도서출판 풍만, 1987. 82쪽.
- 3)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一志社, 39쪽.

「多情多恨」의 창작배경을 고찰하고, 작품구성에 나타난 기독교정신을 드러냄으로 作者가 추구한 개화기의 기독교적 삶이 「多情多恨」을 통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를 探究하고자 한다.

2. 「多情多恨」의 創作背景

1907년은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있어서나 신문학사에 있어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 해였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이땅에 깊이 뿌리내리며 민족종교로 발전을 시작한 해이며, 신문학에 있어서는 1906년 이인직의 「혈의 누」 발표로 열린 개화기소설의 문이 1907년에 와서 단행본으로 출간됨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시기였다.⁴⁾ 우리의 초기 기독교가 구한말 짧은 시일내에 일반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선교적 종교로서가 아니라 개화의 운동, 즉 문화변혁적 에너지로서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구한말 열강의 침략 앞에서 개혁과 개화를 통한 부국강병이 요청되는 민족적 요청의 시기에 기독교는 개화 개혁의 정신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교회와 미션학교, 교회신문, 병원, 출판사 등 개화의 추진력과 조직력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민족운동사에 불후의 공헌을 했다. 한일합방 이후 기독교는 민족독립과 자주운동을 펼치고,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항하는 전초지가 되며 3·1운동을 준비 조직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초기 기독교는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고, 구한말의 열강침략에 맞서 일제 치하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기독교운동은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간다.

1896년 9월 고종의 생일을 맞이해서 기독교는 황제탄일 축하예배를 드렸다. 언더우드가 주동이 되어 서대문 밖 모화관에서 천명이상이 모인 축하예배는 1년전 민비시해사건으로 극도의 불안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고종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기독교가 忠君愛國的 종교라는 것을 일반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와같이 초기 기독교는 민족의 위기를 당하여 민족현실을 직시하고 설교, 기도회, 교회신문을 통하여 나라사랑과 민족사랑을 역설하고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할 것을 역설했다. 기독교는 독립협회운동을 통해서 자주독립사상과 자유민권사상을 서민대중들에게 퍼뜨렸다. 독립협회는 매 주일마다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청년 및 대중들을 자주독립과 자유 민권의식으로 교육시켰다. 당시 기독교가 발행한 신문인 「독립신문」,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신문」은 한결같이 민족의 위기에 직면하여 나라사랑, 민족사랑, 충군애국이 자주독립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李秀浩, 開化期の 基督教的 要素,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60쪽.

독립협회는 당시 수구파들의 민권의 강화는 국권의 소멸이라는 주장을 규탄하면서 백성의 권리가 튼튼할수록 황제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나라의 형세가 더욱 떨침을 역설했다. 초기 기독교가 독립협회와 더불어 전개한 자유민권사상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의 효시가 된다. 이상재, 남궁억, 김정식, 유성준, 홍재기, 안국선, 김린, 이원경 등과 같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독립협회에 적극 참여하였고 1898년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된 이후 이 협회운동은 만민공동회의 형태로 지속되다가 1899년 수구파 정부에 의해 중지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체결을 계기로 민족운동가들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전덕기 목사의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상동파를 형성하여 을사조약 무효화 투쟁을 전개한다. 1907년에는 상동파를 중심으로 신민회가 조직되어 1911년 신민회사건으로 이 모임이 해체될 때까지 한국 기독교의 반일민족운동이 전개된다. 이 신민회에 가담한 기독교 지도자들 안창호, 전덕기, 김구, 이동녕 등이 결국 3·1운동을 계획 수행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사상은 두가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는 사회정치적인 민족운동의 흐름이요 또 하나는 초월성의 신앙체험에 입각한 공동체신앙의 흐름이었다. 전자는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근대적 자유의식을 깨우치는데 처음에는 공헌하였으나 일제말기에는 내면적 초월성 체험 부족 때문에 기독교 동질성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후자는 비정치적인 모습을 띠는 것 같았으나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시에는 초월성 신앙에 입각해서 기독교정신과 민족성을 사수하게 된다.⁵⁾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작품화된 「多情多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作者가 '白岳春史'라는 필명 외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태극학보의 편집 겸 발행인인 장웅진의 호가 '白岳'이었던 점을 주시하고자 한다. 張膺震의 출생연대와 출생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교육가였고 독립운동가였다. 1907년 안창호가 평양에 대성학교⁶⁾를 설립할 당시부터 이 학교의 교무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1909년 8월에는 윤치호·최남선·최광욱·박

5) 김영환, 「한국기독교문헌사학」, 성광문화사, 1995. 310~318쪽 참조.

6) 1907년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인재양성을 통한 教育救國의 이념아래, 교육방침을 건전한 인격의 함양,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족운동가의 양성, 실력을 구비한 인재의 양성, 건강한 체력의 훈련 등에 두었다. 교장에 윤치호, 대변교장에 안창호, 교무책임에 장웅진, 교사에 차이석, 김두화, 나일봉, 장기영, 문일평, 황의돈, 최예향, 유기열, 김현식, 유진영, 김진초, 이상재, 채조 교사에 정인목, 이승설 등이 근무하였다. 1910년부터는 장웅진을 소장으로 한 하기사범강습소를 부설하여 교사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안창호는 '주인정신'을 교훈으로 삼아 독립정신 및 책임정신과 주체적 정신을 강조하고, 務實力行과 성실한 생활을 인격양성의 기본철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나라를 구하는데 힘이 필요하므로 군사관 정인목을 체육교사로 초빙하여 체육시간에는 군대식훈련을 강행하였다. 대성학교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정주의 오산학교 등과 함께 평안도 지방의 교육구국운동에 앞장 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민족항일기 초기의 민족 교육기관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손인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11쪽 참조.)

중화 등과 함께 발기인으로 활동하여 청년학우회)를 창설하였다. 1912년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신민회 회원들과 함께 옥고를 치렀으며 1913년 11월부터 1922년 9월까지 휘문고등학교 보통학교의 학감으로 재직하면서 理化學을 가르쳤다. 3·1운동 직후부터 우리 교육계에 철저한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일어나자 이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 최두선, 중동고등보통학교 교장 최규동,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조동식, 그리고 이상재 등과 함께 숙의하여 1920년 6월 사학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선 전 지역의 유지를 망라한 조선교육회를 결성하는데 힘썼다. 1950년 6월부터 휘문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 같은 해 부산피난지의 임시학교에서 과로로 순직하였다.⁸⁾ 장웅진이 관여했던 태극학보는 太極學會의 기관지였다. 태극학회는 1905년 일본 동경에서 관서지방 출신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유학생 단체였다. 초대회장에 장웅진, 부회장에 최석하를 선출하였다. 태극학보의 성격은 그 발행장소가 일본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직접적인 정치적 기사는 일체 게재하지 못하였고, 제반 학술계몽과 문예 및 서민 계몽을 위한 논설을 실었다. 이밖에 회원 및 학계소식, 유학생 동정을 소개하여 유학생 상호간의 단결 및 권익보호와 국내의 애국계몽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⁹⁾

「多情多恨」의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은 大韓 光武 5년경 즉 1901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태극학보에 이 소설이 게재된 때가 1907년이므로 창작시기와 작품 속 시대배경의 시기 차이는 불과 6년 정도임이 드러난다. 이는 作者가 作品 속에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에 獨立協會로 一變 萬民共同會가 貞洞에서 負商軍의 大打擊을 受호고 再次 龍山血戰에 失敗를 當호되, 內外人心이 洶湧如沸호야, 大小 各學校 學徒는 一時에 同盟休學하며, 各商店은 撤廳盟起호야, 萬國一唱으로 民會에 加勢호니, 此時에 民會는 鐘路에 두고 風餐露宿으로 晝宵를 不撤호고, 一邊으로 派員演說호야 人心을 鼓動호며……¹⁰⁾

7) 애국청년단체로 1909년 8월 항일비밀결사 신민회의 간부인 윤치호·최남선·차이석·이승훈·안태국 등이 신민회의 합법적 외곽단체로 창립하였다. 이 단체는 구국운동단체로 조직되었으면서도 공개 합법단체였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비정치적 수양단체임을 표방하였다. 훈련장령은 무실, 역행, 자강, 충실, 근면, 整齊, 용감 등 7덕목으로 하고 실천방법으로는 德育·體育·智育으로 나누어 강연회·토론회·잡지간행·도서간행·도서관설립·간이박물관설립·순회경기 등을 추진하였다. 회원들에게 인격훈련을 시켜 국권회복운동의 핵심요원을 양성하고자 하였다.(신재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01쪽 참조.)

8) 임재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78쪽.

9) 정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4쪽.

10) 白岳春史, 「多情多恨」, 太極學報 第6號, 宋敏鎬, 앞의 책. 301쪽. 이후부터의 작품인용에서는 作品名과 해당 쪽수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이 대목은 만민공동회가 불의의 기습을 받아 항거하는 우리 겨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화기소설답게 개화기의 시대문제를 작품 속에 반영하고자 한 作者의 의지를 쉽게 읽을 수 있다. 태극학보의 편집자 장웅진이 활동했던 영역이 학교와 학회 등이었고, 그의 활동 목적이 교육을 통한 민족독립과 계몽 및 개화에 있었고, 그 정신적 바탕이 기독교신앙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장웅진이 활동한 범주가 바로 「多情多恨」의 창작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웅진의 호가 '白岳'이라는 사실만으로 「多情多恨」의 저자 필명인 '白岳春史'를 장웅진으로 곧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나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백악춘사'를 여전히 장웅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多情多恨」의 창작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3. 作品構成에 나타난 基督教精神

「多情多恨」은 모두 일곱개의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은 三醒先生이다. 三醒先生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이지만 실제 작품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의 삶은 基督教精神에 근거한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는 作者의 가치관이 기독교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부터 작품 속에서 주인공 三醒先生이 보여주는 삶을 분석하여 그에 나타난 기독교정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1) 卓越한 品性和 闊達한 志氣

「多情多恨」의 주인공 三醒先生은 작품 서두에서 大韓 光武 五年頃 즉 1901년에 한 客자가 되어 한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는 원래 建陽 元年 즉 1896년에 警務局長이 된 인물이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개인의 신분유지보다 컸기에 옮지 못한 명령에 불복하고 과감히 강등조치를 받아들여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三醒先生의 품성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先生은 元來 品性이 卓越하고 志氣가 闊達하여, 青年 當時에 恒常 自思하여 「何如則男子가 此 世에 生하여 碌碌한 俗夫를 作치 말고 不世의 大事業을 成하여 一世의 耳目을 驚動하며 千秋의 雄名을 遺傳하고」 하여, 家業을 拋棄하고 神法 奇術 工夫次로 人情 風土 研究次로 八道江山 遍踏하여 名山大川과 名勝都會를 歷訪하며¹¹⁾

11) 「多情多恨」, 301쪽.

三醒先生의 性格은 ‘品性이 卓越하고 志氣가 闊達’하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기독교의 적극적인 창조정신과도 상통한다. 그래서 선생은 세상에 다시 없는 대사업을 이루기 위해 가업도 포기하고 신법 기술과 인정 풍토를 연구하기 위해 팔도강산을 답사하는 것이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생동하는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명산대천과 명승도회를 방문하는 것을 가업을 잇는 것보다 중시한 것은 현실의 안락함보다도 미래의 고귀한 가치를 꿈꾸는데 연유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단은 삼성선생의 탁월하고 활달한 성격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땅에 충만하고 자연만물을 다스리라¹²⁾고 한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과도 연관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창조론적 인간관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보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땅에 충만하고 자연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 보호하고 이끌 줄이는 주인의식과 더불어 적극적이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생태도, 즉 탁월하고 활달한 성격을 요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선생은 또한 훌륭한 애국정신을 보여준다.

2) 愛國精神

三醒先生은 當局이 萬民共同會를 해산하기 위해 도륙하라는 통지를 내리자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當局에서는 百方手段으로 民會를 解散코져 하되, 民會에서는 當局의 處置를 益益 憤慨하여, 人民과 當局間에 輻輳이 日甚하니, 此時 城中 景光은 怪雲이 慘愴하고 殺氣가 騰騰하여, 不知瞬刻間에 腥風血雨의 活劇을 演出할 듯하더라. 一夜 警務局長에게 通知가 急下되되, 卽刻으로 巡檢 幾百人을 領去하여 民會를 屠戮하라 하거늘, 先生이 沈思拒曰, 「口來分付는 決不許聽이라.」 하니, 畢也 當局에서 局長을 招入하는 境에 至하더라¹³⁾

삼성선생의 당국 명령 불복종은 마침내 당국의 소환까지 불러오게 되고 결국 목포경무관으로 移職되기에 이른다.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영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기독교적인 애국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도 에스더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죽으면 죽겠다¹⁴⁾는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작품의 作者로 추정되는 장용진은 대성학교 등지에서 구국을 위한 교육사업

12) 창세기 1장 28절.

13) 「多情多恨」, 302쪽.

14) 에스더, 4장 16절.

에 주력하면서도 청년학우회나 독립협회 등에 관여하여 나라를 위해 힘썼다. 장응진의 활동은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나라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는 작자의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애국정신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愛民精神

三醒先生은 목포경무관으로 부임해서 한 역부의 부당한 피해를 접하여 그 진상을 면밀히 알아본 뒤 잘못된 법조문 적용을 바로잡게 된다.

先生이 木浦警務官으로 赴任한지 幾日後에, 一日은 一役夫의 告訴를 聞은즉, 役夫廳에서 役夫 牌長이 一役夫를 笞六十度에 處하야 幾至死境이라 한거늘, 巡檢을 卽派하야 該牌長을 捉致 問招曰, 「官憲이 自在한거늘, 네가 무슨 名色으로 人民을 私刑에 處하야 死境에 至한말이나?」, 牌長 「小人이 小人의 自意로 한거시 아니오라, 役軍中에 不法한 者가 有하면 隨時 處罰이라고 監理使道의오서 許給하신 條文에 笞刑에 處한 거시옵니다.」, 先生 「監理使道의오서 如許한 條文을 許給한말이나?」, 牌長 「네-果然 監理使道의오서 條文을 許下하섯습니다.」, 先生 「그러면 그 條文을 가져 오너라.」¹⁵⁾

그 조문이 국민을 가혹하게 하는 원인이 됨이 확인되자 삼성선생은 즉시로 담당관리와 교섭하여 해당 조문을 撤破시킨다. 그리고 많은 역부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한다.

先生이 數多 役夫를 一齊 招集後에 諄諄曉諭曰, 「今日 該條文은 既爲破棄한것스니, 너희 등은 다시 牌長等의 不法한 笞刑을 不受할 뿐만 아니라, 만일 牌長輩中에 依前 頑習을 不改하야 不法行爲를 敢行한 者 有거든, 卽時 余의게 告訴하라.」 하고, 年來 頑冥 狹雜한 牌長輩의 餌食을 不免한 役夫羣을 自由로 解放한니, 憐彼愚蠢한 役夫軍의 喜悅 雀躍하야 萬歲를 齊唱하며 太平을 謳歌한 樣子 米國 南北戰爭後에 自由解放한 黑奴의 그것과 恰似하겠더라.¹⁶⁾

역부를 가혹하게 하는 조문이 파기되었으니 부당한 태형을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자신에게 바로 알리도록 당부한다. 또한 억울하게 잡혀있던 역부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역부들이 만세를 외치며 태평을 구가하는 모습을 작자는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자유를 얻은 노예들의 해방과 흡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해방의

15) 「多情多恨」, 302쪽.

16) 「多情多恨」, 303쪽.

선물을 만들어내었던 링컨대통령은 기독교신앙에 근거하여 정치적 경륜을 펼쳤던 인물¹⁷⁾이다. 인간의 활동은 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신앙이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때, 노예를 자유케한 링컨의 정치사상이나 백성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한 삼성선생의 정치적 경륜을 형상화한 作者의 의도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정신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대목은 삼성선생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이 잘 형상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迷信打破

三醒先生은 미신행위를 근절하는데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한 사람이 삶은 돼지고기를 큰 그릇에 담아 남쪽으로 순회하는 광경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그것이 미신숭배임을 알고 즉시 개입하여 정리하게 한다.

此時에 先生이 上席에 坐호야 窓隙으로 瞥見호는즉, 一人이 烹豚을 큰 그릇에 담아 가지고 南北으로 巡回하다가, 略 一時間後에야 酒果와 兼호여 酒席에 尼이거늘, 先生이 心中에 自思호디, 必是 愚昧호는 人民等이 또 귀신이나 神堂等屬을 崇拜호미로다 호고 宴罷乃歸러니, 其後에 一巡檢을 私招호야 隱然問曰, 「日前 宴會時에 니 一瞥見호는즉, 烹豚을 가지고 이곳 더곳 巡回호는니 是何曲折고?」 巡檢 「네-이곳 此山下에 數百年來로 爲호는 神堂이 잇스옵는데 大端히 靈검호고 嚴호와, 官民間에 무슴 飲食이 싱기면 반다시 몬져 此神堂에 供獻호는 規例가 有호옵는이다.」 호거늘, 先生이 허허 大笑曰, 「幽明이 地已隔호고 神人이 位已殊어늘, 神人 共居가 甚是未便者也로다.」 호고 卽時 巡檢 幾人을 불너 「該神堂을 處置호라.」 호는즉, 巡檢等이 大驚戰慄曰, 「此神堂은 數百年來 有名히 靈검호는 神靈이라. 만일 人間이 些少호는 罪를 犯호면 神罰이 立地에 至호옵는이다.」 호거늘, 先生이 大呼曰, 「神罰은 我自當호리라.」 호고, 卽時 役軍과 巡檢을 率去호야 該神 堂을 燒棄호니, 人民이 戰慄 相目曰, 「今次 警務官 命監은 天主教人이 아니면 耶蘇敎人이라.」 고 소문이 浪藉호더라.¹⁸⁾

미신숭배의 관습이 지나는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삼성선생은 떨고 있는 巡檢등을 보며 자신의 책임아래 미신숭배의 온상이 신당을 태워 없앤다. 신당을 없애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전을 하는 모습은 당시 서민들의 미신숭배 풍토를 잘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삼성선생을 천주교인이

17) 링컨대통령은 어린시절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성경책을 평생 간직하고 읽으며 신앙심을 키웠다고 한다.

18) 「多情多恨」, 303쪽.

아니면 예수교인이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신앙이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제1계명¹⁹⁾과 제2계명²⁰⁾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는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미신타파 정신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선생은 구습을 一掃清新하고 서민보호의 실제적인 일들을 더욱 힘쓰던 중 특별한 사유없이 하루 아침에 免職을 당하여 상경하게 된다.

5) 人材養成

三醒先生은 상경한 후 청빈한 생활 속에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일절 정치 활동을 중단하여 세상 근심을 잊는다. 그리고 아동교육과 동포개발을 위해 남은 생의 천직으로 힘쓰고자 한다. 동네 유지 인사와 상의하여 소학교 신축을 계획한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각자 礎石을 준비하게 하여 소학교 신축에 착수한다. 여기서 얻는 기쁨은 이전의 정치생활에서 맛보지 못한 것이었다.

先生이 木浦警務官으로 免職 上京하니, 家勢는 淸貧如洗하니 賢夫人 姜氏와 長男 유봉이 八歲와 次男 하봉이 四歲와 及先生 合 四人間의 和氣靄靄한 家庭에서 一切 政海의 蹤跡을 斷히야 世憂를 忘히고, 專혀 兒童教育和 同胞開發로써 半生의 天職을 盡히고져 하니, 洞內 某某 有志人士와 相議히야 小學校를 新築設立하기로 決定하고, 小學 兒童을 一齊히 불러 「礎石 一個式을 求來하라」 하니, 兒童輩가 爭先 歸家히야 各自의 柱礎를 써여 오며, 或 不美한 거슬 가져오는 兒는 相責相促히야 不日內에 基地를 定하고 新築에 着手하니, 此間에 無窮한 滋味는 前日 風雲界 生活時의 到底 夢想하지 못하였는 바더라.²¹⁾

삼성선생의 맑은 心性과 인재양성 의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인재양성의 기초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삼성선생은 소학교를 새로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 가르치고 있는 아동들이 준비해오도록 한 것은 아동들이 자신이 공부할 소학교 건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훈련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이 가져오는 자연석 주춧돌 중에는 모양이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어 그것을 책했다고 했는데 이는 기초가 보기좋게 잡혀야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19)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20)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1) 「多情多恨」, 303~304쪽.

것이다. 삼성선생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개화기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벌인 주요사업 중의 한 부분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학교설립은 인재양성의 근간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인재양성 즉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여 교훈을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르게 키우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 사람으로 온전케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²³⁾인 것이다. 삼성선생의 인재양성 의지는 作者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견지명과 기독교적 교육관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삼성선생의 순수한 인재양성의지와 이에 따른 소학교 설립을 그냥 두지 아니하며 궁지로 몰고간다. 이렇다할 죄목도 없이 소학교를 신축한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선생이 체포되는 것이다.

6) 犧牲精神

삼성선생은 자신이 평범하게 살아가면 큰 환난이나 고통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나라사랑과 민족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미신타파, 미래지향적이며 애국적인 교육관과 이의 실천으로 인해 수난을 감수하게 된다.

先生이 집에 도라와 衣冠을 定着後에 朝餐을 먹고 나아가니, 數多 別巡이 先生을 左右前後로 擁衛하고 나는 드시 警務官門內에 드러가니, 大罪人을 捕縛하였다고 속운속운하는 소리 四面에서 들니더라. 先生은 엇더한 竝단을 아지 못하고 引導하는 디로 獄間에 드러가니, 一青年이 馳前拜揖曰, 「命監되서 엇지하여 또 이곳에 드러오시옵는잇가?」 하고 痛飲泣하거늘, 仔細히 바라보니 此青年은 卽 四五年前에 先生이 局長으로 잇을 時에 手下에 親히 부리든 使喚이라. 此使喚은 廳內의 大小物論을 聞知함으로, 先生의 被捉됨을 듯고 如此히 痛惜哀呼하니, 此乃 先生의 重罪를 默示함일 네라. 一邊으로 拷拷를 치우고 看守를 嚴히 하야 一朝에 汚穢를 極하고 黑暗한 牢屋中에 自由를 失한 몸이 되니, 嗚呼라 黑雲이 慘愴하고 前路가 杳茫하다, 先生의 運命!²⁴⁾

삼성선생은 무고히 투옥되었다가 ‘祭壇에 나아가는 羊’²⁵⁾과 같이 問招場에 들어가서 백방으

22) 디모데후서 3장 16절.

23) 디모데후서 3장 17절.

24) 「多情多恨」, 304쪽.

25) 「多情多恨」, 앞의 면.

동물 속죄의 모티프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

로 訊問을 받고 다시 하옥된다. 선생은 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전에 경무국장으로서 있으면서 몇백의 불행한 사람들을 이와같이 악형에 처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큰 원한을 세상에 쌓았다²⁶⁾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죄목을 가지고 적법하게 형을 받았다고 해도 선생 자신이 그 고통을 받아보니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악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선생은 한 평양사람이 미국에 갔다 온 죄로 3년이나 중형에 시달리다 '不歸의 魂'²⁷⁾이 되는 것을 목격한다. 삼성선생은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보려다 경무국장까지 지낸 몸으로 감옥에까지 갇히는 철저한 희생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옥중생활 1년 후부터는 5-6인이 자유로 운동도 하고 古談笑話와 新聞 등을 읽으며 지낼 수 있게 된다.

7) 自慰自樂精神

선생은 재미있는 책자를 구하면 옥중의 소일물이 될까하던 중에 어느날 <天路歷程> 한권을 구하여 읽게 된다.

一日은 同時獄中에서 懲役하는 某志士의 因緣으로 耶蘇教冊 幾百部를 드러왔던 말을 듣고, 無聊之餘에 小説보는 一體로 或 世憂를 忘홀까 하여, 親近한 付託으로 <天路歷程> 一卷을 求來하니, 此는 英人 繙然約翰이 失睛한 女息을 다리고 十二年間 獄中에서 고싱하며 著作한 者라. 先生 이 同境遇에 同情의 淚를 不禁하여 晝宵를 不息하고 孜孜 讀來하니, 隱然中에 一種 快味를 漸覺하고, 또 全文義를 通하여 半點이라도 人을 怨望하는 氣色이 無하며, 恒常 自己의 運命을 自慰自樂하는 精神이 到底 凡常한 人士의 思及할 바 아니니라. 先生이 疑訝默思히되, 彼도 人이오 我도 人이 어늘, 彼는 如何한 思想과 如何한 精神이 有하여 如許히 浮世의 苦樂을 冷視함인고. 다못 드른즉 彼는 耶蘇教를 信한다 하니, 實노 耶蘇教中에 如許한 能力이 有한가²⁸⁾

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레위기 16장 18절~22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서 삼성선생을 ‘양’으로 묘사한 것은 민족의 장래를 준비하다 무고하게 문초를 받아야하는 것을 성경모티프에 근거하여 표현한 것으로 사료된다.

26) 「多情多恨」, 305쪽.

27) 「多情多恨」, 앞의 면.

28) 「多情多恨」, 306쪽.

이 책은 영국인 존 번연이 12년동안 눈먼 딸을 데리고 옥중에서 고생하며 저술한 것임을 알게 된다. 옥에 있는 삼성선생이 번연이 옥중에서 집필한 책을 읽게 되는 것은 그만큼 <天路歷程>에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주인공이 조금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으며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만족하며 즐길 줄 아는 정신에 매료된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궁구하던 중 그 주인공이 예수교인임을 알고 예수교 중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것인지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作者는 자위자락하는 정신의 고귀함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위자락 정신의 근원이 기독교신앙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眞理追究精神

선생은 마음을 결단하고 신구약 성경을 구해 읽어간다.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 믿기를 결단한다.

於豈에 同志 幾人이 마음을 決斷하고 新舊約 幾部를 求來하야, 自此로는 晝宵 餘念없이 漸次로 讀去하니, 其中에 千古難解의 眞理가 包藏하고, 一種 難言의 快味를 感得하되더라. 幾朔을 熱心으로 攻究하야 僅僅 讀畢하니, 心眼이 洞開에 一種 活路를 新得한 듯. 相議 後에 一是耶蘇 믿기를 確定하고, 一邊으로는 聖經研究外에 餘念이 無하더라.²⁹⁾

삼성선생은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간절히 권하며 계속하여 성경연구에 전념한다. 作者는 이 대목에서 삼성선생의 진리추구정신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진리³⁰⁾의 한 면을 발견한 이상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연구하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선생이 하루는 한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9) 十字架精神

삼성선생이 읽게 된 책의 공간적 배경은 미국 동부지방이다. 가난에 시달리다가 금광 일로

29) 「多情多恨」, 306쪽.

30) '진리'에 대해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란 인생의 길이 되며 생명 그 자체인 예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공한 남편을 어린 자식과 함께 찾아나선 부인이 배 안에서 화재를 겪게 된다.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선객들이 상의하여 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씩만 뽑아 종선으로 구출하기로 한다.

이씨에 그 夫人은 到底 母子 兩人的 生命을 다 救得할 길이 萬無함을 보고, 夫人이 皇天의 祈禱하며 船員들에게 哀願 懇請하고 그 愛子의 손을 잡고 울며 永別辭를 주어曰, 「나는 오늘날이 海中에서 不幸한 鬼神이 되나니, 너는 부디부디 조심하여 아버지의 가서 내 말을 傳하고, 아버지 모시고 부디 잘 살아라.」 이 말을 맞치고 宗船이 떠나자 人類의 罪를 代贖하여 十字架에 이슬로 消去한 耶蘇와 같지, 이 愛子의 生命을 代表한 慈悲 多情의 愛母는 焔焔無情한 猛火의 捕擄가 되어 千길 萬길 깊은 龍宮으로…….31)

그 부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원들에게 어린 자식을 맡기고 아버지를 만나 부디 잘 살기를 바란다. 부인은 종선이 떠나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作者는 이 광경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에 직유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린 자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비롭고 ‘多情’한 어머니는 가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가난으로 고생하고 이제 성공한 남편을 만나기에 앞서 불의의 사고로 죄없이 죽어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부인은 ‘多恨’을 안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어린 자식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多情’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죄없이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며 죽음으로 남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며, 이것은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부인의 다정한 죽음과 죄없이 옥에 갇혀 고통을 겪는 삼성선생의 삶과도 통하는 것이다. 즉, 자식을 위한 한 부인의 죽음이나 민족을 위한 삼성선생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정신에 닿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선생이 이 책을 모두 읽고 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두 아들이 옥중에 찾아온다. 장남 유봉이 더 이상 살아갈 대책이 없다는 어머니의 말을 전하며 눈물로 통곡하니 옥중 사람들 모두가 슬퍼한다. 선생은 가족이 겪는 극한 가난의 소식 앞에서 슬픔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10) 하나님 中心의 信仰

삼성선생은 아들 유봉을 달래고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며, 예수를 잘 믿고 안심하면 자연 살 길이 있음을 강조한다.

31) 「多情多恨」, 306쪽.

一場放哭後에 先生이 유봉의 손을 잡고 눈물을 씨쳐 주며 닐러曰, 「네가 집에 도라가서 어머니의 이리케 엮주어라. 하늘님이 우리 사람을 니실 씨에 엮지 굴머죽게 冥理致가 잇게삼넛가. 耶蘇 잘 맞으시고 安心호야 지너시면, 自然 사난 道理가 잇잡니다…」³²⁾

선생은 실제적인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며 염려치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作者는 하나님 중심의 信仰에 焦點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선생은 옥중에서 기도와 찬미로 지내다가 3년만에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한다.

4. 基督敎의 삶의 文學的 形象化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多情多恨」에 나타난 기독교적 삶의 문학적 형상화의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序頭에서 作者는 時空間的인 背景을 描寫하고 主人公의 처한 形편을 단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時節은 大韓 光武 五年頃인가. 홀너가는 가을빛슨 大地를 包容호야 나무가지 풀넙마다 누룻누룻 峰峰호 黑雲中에 씨엿다 버섯져다 씨러지는 日輪은 黃海 水平面上에 半掛호야 上下天을 眞紅으로 물드린 듯, 順風에 돛글 달고 濟物浦로 도라가는 漁夫노리, 울굴굴 미러 오는 潮水소리, 찢다 잠겨다 펼-펼 나라드는 白鷗소리, 自然의 妙樂을 合奏호는 듯. 이저에 草草호는 匹騎輕裝으로 一童子를 隨行호야 仁川港 柚峴으로 下來호는 一客子, 年 可四十頃에 容貌가 秀出호고 風采가 非凡호나, 多年 客地風霜에 苦楚를 經호인지 人世風波에 辛酸을 嘗호인지, 顏色이 憔悴 清白호고 骸骨이 稍高호야 一種의 秘憂를 먹음은 듯호더라.³³⁾

이 대목은 建陽 元年(1896년)에 警務局長으로 榮職에 있던 삼성선생이 독립협회로 바뀐 만민공동회의 모임을 도록하라는 當局의 명령에 거절하자 목포경무관으로 강등되어 인천항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일의 사리분별에 밝고 백성을 사랑하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주인공의 의연한 기백과 이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깊이를 읽을 수 있다. 이 作品의 제목인 「多情多恨」과 연계시켜 볼 때, 경무국장의

32) 「多情多恨」, 307쪽.

33) 「多情多恨」, 301쪽.

지위에서 목포경무관으로 강등되는 것은 ‘多情’에 해당되지만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多情’을 선택한데 따르는 결과이기도하다. 삼성선생의 ‘多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참된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의 결미에서 더욱 온전해진다.

自後로는 一團中에 耶蘇를 信依하는 마음이 날노 두터워, 獄中에서 祈禱 讚美하며 歲月을 보느
 더니, 人事가 窮則必變하고 苦盡甘來로다. 青天白日下에 無罪放免하는 몸이 되어, 三年 만에 獄門
 을 辭出하고, 世上에 나와서도 此有志團은 獄中誓約을 不變하고, 上帝의 뜻을 맞드리 社會事業과
 公共慈善等 事業을 一心으로 經營하는디, 先生은 至今도 一身을 救世에 自委하여 傳道事業에 熱心
 從事함내다. 아멘.

삼성선생은 옥중에서의 모든 고통을 무죄방면 받음으로 ‘多情’의 멍에를 벗어난다. 뿐만아니라 옥중 독서를 통해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여 ‘社會事業’과 ‘傳道事業’에 열중하게 됨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多情’의 役事를 펼쳐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삼성선생이 자신의 義를 바탕으로 나라사랑과 민족애를 실천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삼성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義로 사회사업과 영혼구원에 정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가 현실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삶이라면 후자는 내세적이고 헌신적이며 영적인 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는 전자를 포괄하면서도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作者는 주인공 삼성선생이 사회사업과 공공자선 등의 사업 및 전도사업에 열심인 것을 현재 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 부각의 지속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 보이는 ‘아멘’이라는 표기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의 기독교 신앙용어로서 作家의 기독교 신앙적 의식을 가늠하게 하는 용어이기도하다.

작중 독서 삽화로서 동부지방에 살던 한 부인이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스토리나 삼성선생이 나라사랑과 민족애를 실천하기 위해 열정을 쏟다가 옥중생활도 불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대속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는 것과 유비³⁴⁾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삼성선생의 탁월한 성품과 활달한 기개, 애국정신, 애민정신, 미신타파정신, 인재양성의지와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作家의 희생정신, 自慰自樂精神, 진리탐구정신, 십자가정신, 하나님중심의 신앙과 삶의 추구를 기독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에서 그 문학적 의미가 높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4) 사물 상호간에 대응적으로 존재하는 동등성 또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5. 맺는 말

이제까지 개화기소설인 백악춘사의 작품 「多情多恨」의 창작배경을 고찰하고 작품구성에 나타난 기독교정신을 발굴하여 개화기의 기독교적 삶이 「다정다한」을 통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作者 백악춘사로 보이는 태극학보의 편집자 장응진이 활동했던 영역이 학교와 학회 등이었고, 그의 활동 목적이 교육을 통한 민족독립과 계몽 및 개화에 있었고, 그 정신적 바탕이 기독교신앙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장응진이 활동한 범주가 바로 「多情多恨」의 창작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응진의 호가 '白岳'이라는 사실만으로 「多情多恨」의 저자 필명인 '白岳春史'를 장응진으로 곧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나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백악춘사'를 여전히 장응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둘째, 작품구성에 있어서 주인공 삼성선생의 탁월한 품성과 활달한 기개, 애국정신과 애민정신, 미신타파정신, 인재양성지지, 희생정신을 분석하고, 作者의 성격에 근거한 自慰自樂精神, 진리추구정신, 十字架精神, 하나님 中心의 信仰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천착해 내고자 했다.

셋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삼성선생이 자신의 義를 바탕으로 나라사랑과 민족애를 실천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삼성선생은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義로 사회사업과 영혼구원에 정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多情多恨」은 作家 백악춘사가 주인공 삼성선생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회사업 및 영혼구원의 전도사업으로 기독교적 삶을 통해 보여준 기독교정신의 문학적 형상화를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수준높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白岳春史, 「多情多恨」, 태극학보 6호·7호,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 蘇在英, 「韓國文學思想과 基督教」, 『기독교와 문화』, 도서출판 풍만, 1987.
- 蘇在英 外,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송실고전문학연구회편, 작품으로 읽는 우리 문학, 태학사, 1993.
- 李在銑·金澤東·朴鍾哲, 開化期文學論, 형설출판사, 1981.
- 권영진, 「한국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양상」, 『한국 기독교와 예술』, 송실대 한국기독교문
화연구소 편, 도서출판 풍만, 1987.
-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성광문화사, 1995.
- 洪一植, 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 열화당, 1991.
- 임영천, 기독교와 문학의 세계, 대한기독교서회, 1991.
- 黃良秀, 韓國基督教文學의 形成研究, 基藝文館, 1992.
- 李敏子, 開化期 文學과 基督教思想 研究, 集文堂, 1989.
- 이수호, 開化期の 基督敎的 要素,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 기진오, 한국 기독교 문학사론, 성서신학서원, 1995.
- 金京完, 韓國 開化期小說과 基督教, 崇實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第13輯(人文·社會科學篇), 1995.
- _____, 開化期小說 「경세중」에 나타난 基督教精神, 崇實語文 第13집, 崇實語文學會, 1997.

Abstract

A Study on Christian Spirit of 『Dajeongdahan』 (多情多恨), the Novel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of Korea

Kim, Kyung-Wan

『Dajeongdahan』 is a Christian novel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of Korea published in Vol. 6 (1907. 1. 24) & Vol. 7 (1907. 2. 24) of 'Taegukhakbo'.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writing, Christian Spirit in plot of work and literarily figured Christian Life in 『Dajeongdahan』, the Novel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of Korea written by Baekakchunsa.

First, a field of activity of Chang, Eung-Jin, editor of 'Taegukhakbo' like Baekakchunsa, was school and society etc. And his aim of activity was independent of the nation, enlightenment and civilization. His mind was based on Christianity. So It is known that activity field of Chang, Eung-Jin was the background of writing of 『Dajeongdahan』.

Second, it analyzed that the teacher Samsung, work' leading character has a prominent nature, broad-minded spirit, love of his country and people, defeat spirit of superstition, will of talent training, and mind of self-sacrifice in plot of work. And it presented that author's figured will was mind of self-consolation & self-pleasure, spirit of truth pursuit, mind of holy Cross, the faith with God based on Bibl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 Samsung before he meet with Jesus lived for love of his country and people based on his will. But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

Samsung after he meet with Jesus lived for Social Work and salvation of soul based on the faith with Jesus in a new dimension's quality.

『*Dajeongdahan*』 by Baekakchunsa is placed high value on a high level's literary figuration about that the teacher Samsung meet with Jesus Christ in personality, then he translated Christian Spirit into action through Christian life, Social Work and gospel preaching work for salvation of soul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of Korea.